이렇게 들었다

눈덩이 가계빚

"빚의 결박 무겁고 괴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과 손해됨을 잘 따져서 해야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잘 알아 시행하기 때문에 바다에 강물이 끊임없이 모여들 듯 재물은 나날이 늘어나리라. 재물을 모으되 법답게 하고 법답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되 법도를 잃지 않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 <별역잡아함경>

어떤 사람이 백만장자에게 물었다. "부자되는 비결 3가지만 가르쳐주세요." 그러자 백만장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 검소하라! 둘째도 셋째도 검소하라!"

지난 1·4분기동안 우리나라 가계대출 총액이 1년전보다 23%나 늘어난 276조원에 이르고, 그 결과 가구마다 1,93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6월 23일 밝혔다. 이 액수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이나 판매 신용 또는 신용카드 대출 잔액의 총계를 나타내는 것일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채 부담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연도별 총액 규모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나가면 개인 파산이나 신용 불량자가 또다시 증가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의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이 요구되는 때다.

가정 빚이 느는 원인은 물론 1차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의 재무 관리가 부실한데 있다. 요즘은 10대들도 카드 빚을 마구 낸다. 그러나 보다 큰 원인은 은행들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대출을 기피하고 개인 고객만 확보하려는데 있다. 전체 대출 중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가정경제의 파산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이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다른 이에게 재물을 빌리고 재물을 빌린 뒤에는 남의 구박받아 고뇌가 된다. 빚 주인은 찾아와 독촉을 하고 그 때문에 끝내는 결박되나니 그 결박 무겁고 괴롭다."는 〈중아함경〉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아무리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고 하지만 소득과 형편에 알맞게 돈을 쓰는 것은 가계가 지켜야 할 절도(節度)다. 〈선생경〉의 "가난하고 궁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재물을 가벼이 여겨 사치를 즐기면 가정이 파괴되고 재앙을 부른다"는 가르침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금융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강력히 규제하고 신용정보 심사기능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은행도 가계대출 과당경쟁에서 벗어나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깨닫는 일일 것이다.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면서 재물에는 재앙 있음을 스스로 눈떠 욕심을 버려 족함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재물을 쓰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리니 욕심속에 살아가는 사람중에 최상이니라."〈복음경〉

김재경 기자

業사상 어긋나는 '대권 풍수'

불자 세상보기

발복 풍수적 이장 국민들의 조롱거리

"명당 찾기보다 정토를 만들라"

최원석

성신여대 강사

지리학 박사

얼마 전 국토가 타들어 가듯 목말라 온 국민이 고통에 시름겨워하고 있을 때, 참으로 어이없게도 김종필씨가 선친묘를 왕기가 서린 곳으로 이장했다고 하여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사실 선대를 좋은 자리에 모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자식으로서는 당연한 도리요 효심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행동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대권이라는 욕심에 경도되어, 더구나 요즘같이 국토의 묘지화가 비판적으로 거론되고 화장이 바람직한 장묘 형태로 자리잡혀 나가고 있는 이때에 공인으로서의 김씨의 행태는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빗나간 모습이다. 그의 이러한 행태는 올바른 풍수사상과 풍수적 실천에 대한 무지의 발로일 뿐만 아니라 풍수에 먹칠을 하는 모욕에 다름 아니다.

풍수에서는 왕기가 서려 있는 좋은 터에 묘를 쓰면 과연 목적을 이룬다고 말하는가? 풍수의 감응은 그림자 지듯, 메아리 치듯 따른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곧 땅을 얻는 사람이 생전에 얼마나 덕을 쌓았는가, 그리고 터를 쓰는 후손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끝으로 땅을 쓰는 시기가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김씨의 일에는 이 모든 전제가 올바른 도리에 맞지 않았다.

대권주자들의 발복풍수적 작태가 오늘날 온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정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추어 더 이상 풍수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가치조차 없다. 그래서 차라리 불자로서 풍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는 편이 유익할 듯 싶다.

불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업(業) 사상을 철저히 강조한다. 따라서 좋은 땅도 평소에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한만큼 그대로 따라 올 뿐이다. 이와 반대로 명당을 찾아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불자라면 불교의 이상향 관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풍수에서는 명당을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정토를 말한다.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은 좌청룡 우백호 등의 조건에 합치되는 매우 한정된 장소에 있으나, 불교의 정토는 내 마음이 맑으면 이르는 곳마다 극락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불교적 이치로 보자면 우선 나의 심지(心地)를 맑고 향기롭게 닦는 일이 우선인 것이다.

불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풍수를 수용한다면, 도선국사와 같은 조사들이 개인의 발복을 위한 이기적이고 소승적 풍수가 아니라 국토의 온 땅을 명당화하는 대승적인 풍수를 실천한 전통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도선의 가르침은 온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불교적 깨침을 자연에 적용시켜 온 땅이 명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깨달음이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터의 자연가치를 가꾸어 드높이면 얼마든지 명당이 될 수 있다.

지리산 댐 건설 뿐만 아니라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 등 긴급한 생태환경의 보전에 당면하여 온 몸을 던져 막고 있는 불교계의 선각자들은 불자로서 풍수를 올바로 알고 실천하는 도선국사의 화신들이자 스승인 것이다. 사욕에 눈 먼 무덤 짓거리 집어치우고, 온 국토에 두루 있는 불성을 충만하게 살리는 일이 오늘날 참된 불자로서 풍수를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요 풍수적 방편의 실천이다.

열 린 마 당

종교교도소 운영

한국 교정사(矯正史)의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로 평가되는 종교교도소 도입이 1일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206호)의 발효로 가시화되고 있다. 종교교도소 도입은 우리나라 교정사 뿐 아니라 종교계의 지형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정 및 교화를 통한 종교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교세 확장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개신교계는 이미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한 재단법인 '아가페'를 6월 8일 출범시키고 오는 2002년말까지 기독교 교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민영교도소법 시행에 따른 종교교도소의 운영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불교도 설립준비위 구성 절실"

혜철 〈불교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

우리나라도 현정부 출범후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춰 민영교도소 설립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체가 교도소를 위탁받아 사설 교도소를 설립,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아무리 질 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희생이 우선되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교정교화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적응훈련을 시키는데는 다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최근에는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7월1일부터 민영교도소법의 시행에 맞춰 이미 기독교 계통에서는 민영교도소 설립 운영을 의한 법인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톨릭의 경우 2001년부터 세부적인 연구비 편성계획을 세워 가톨릭교도소 설립에 다비하고 있다. 원불교는 종단내에 원불교교도소 설치 추진위원회를 두고 모임을 가졌지만, 막대한 예산문제로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시행할 전망이다. 2003년이면 어떤 모양의 민간교도소가 되던 종교교도소가 문을 열 것은 자명하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지금까지의 교도소 위문차원이나 포교차원의 교화운동 및 법회가 아닌 민영교도소 설립에 의한 운영이 절실하다.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에 입각한 동체대비사상으로 적극적인 교정교화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종단적인 범불교 교도소 설립 준비의원회가 하루속히 결성되어야 한다는 바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의 동참과 후원을 기대한다.

"사교집단화 경계…단계적 추진"

이윤호 〈경기대 교정학과 교수〉

종교단체에 의한 민영교도소의 운영은 선교나 포교 등 지나친 종교활동의 강조로 인한 광신자화나 사교집단화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고,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의 교도소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종교단체나 기관 등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하라도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종교 교도소 운영의 가장 큰 쟁점이 되는 해당종교의 강요나 강제 등을 막기 위하여 수용자를 지원자들로 선발하고 수용생활 중에도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되, 정당한 포교나 선교를 통하여 신도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교계의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단체에 비하여 민영교도소 운영주체로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사찰소유의 유휴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건축경비를 줄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대부분의 사찰이 도심지역을 벗어나서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의 폐교 등을 청소년보호시설이나 개방시설 또는 요양시설 등으로 개조하여 운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종교의 실천과 종교의 사회적 참여와 봉사, 그리고 포교를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서 교도소 민영화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경비의 조달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 참여가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 청소년범죄자, 여성범죄자 또는 마약이나 정신질환범죄자 등 특수범죄자를 위한 특수수형시설을 불교교도소로 민영화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신교·가톨릭 등 이웃종교에서는 종교교도소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어 불교계도 이에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사진은 춘천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장면.

기독교교도소 '준비'

올 위탁계약 체결

내년 말 시설 완공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주축이 된 개신교계가 1일부터 발효된 민영교도소법에 맞춰 설립을 추진하는 기독교교도소는 민영교도소 1호로 기록될 전망이다. 6월 8일 기독교교도소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아가페'를 발족시킨 개신교계는 수도권내 부지 물색(7월)과 법무부와의 위탁계약 체결(2001년말까지), 교도소 설계 및 건축(2002년 12월) 등이 마무리되는 2003년 1월 제1기 재소자 입소 및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갈 계획. 약 300억원으로 추산되는 건물과 시설 비용은 '아가페'가 담당하고 운영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1년에 수형자 1인당 700여만원을 국가에서 지급. 500명 수용시 총 35억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기독교교도소는 잔여 형기 2년 가량의 기결수 5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이감을 원하는 수형자들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의 일반 수형 생활 외에 아침(5시 새벽찬양기도회)·저녁(7시 기독교 교육프로그램)으로 기독교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아가페'는 중기계획으로 제1 남자교도소 운영, 중간처우의 집 5개소 개원, 외국인 전담교도소 위탁운영, 범죄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실시, 소년교도소 건립을 마련중이다. 또한 장기계획으로 약물사범 전담교도소, 노인 및 장애인 교도소, 여자교도소, 가해자-피해자 중재프로그램 실시 등 장기계획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02)741-2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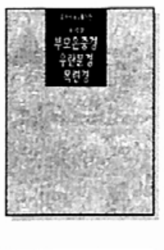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우란분절·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

우란분재와 칠석이야기

우란분재의 연원, 우란분재의 의미,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등을 우란분절법회와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쉽게 요약 수록하였습니다.

신국판 72페이지, 정가 1,500원



우리말 부모은중경·우란분경·목련경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우란분회에 대하여, 우리말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신국판 64페이지, 정가 1,500원

우란분절과 효이야기

우란분절 법어 및 발원문, 백중기도와 부모님을 위한 발원, '효'에 대한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 영원한 사랑이야기… 칠석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 하였습니다.

신국판 80페이지, 정가 1,500원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과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로출판사 ☎ (02)723-4306-7, FAX(02)738-8682

2545 여름불교학교 현수막 안내

여름불교학교 일시: 장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일시: 장소:

여름불교학교 관음사 일시: 장소:

우란분절 49재 지장기도 입재: 회향:

■ 90cmx6m(40,000원), 7m(45,000원), 8m(50,000원), 10m(60,000원), 12m(70,000원)

핸드백에 쏙 들어가는

포켓용 한장본 불서

■크기 : 10cm×17.7cm

■각권 2,500원

법보시로 좋습니다.

- 천수·반야심경 (100페이지)
- 불설아미타경 (86페이지)
- 천지팔양신주경 (94페이지)
- 부모은중경 (102페이지)
- 천수·관음경 (110페이지)
- 예불대참회문 (86페이지)
- 관세음보살보문품 (90페이지)
- 금강반야바라밀경 (120페이지)
- 무상법문집(영가전에) (110페이지)
- 약사여래본원경 (104페이지)

티셔츠

■아동용:6,000원

■성인용:8,000원

×그림 다양.

앞치마

■색상:빨강, 노랑, 녹색, 군청

■가격:4,000원

방생 타이슬링

■색상:청색, 녹색

■가격:1,000원

■2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가능

부채

■가격:700원

■5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가능

앞면 뒷면

여름불교학교용

썬 캡

▲성인용

■가격:3,000원

■색상:군청색

▲아동용

■가격:3,000원

■색상:빨강,노랑,청색

차걸이 연꽃염주

■가격:3,000원

■색상:분홍, 노랑, 보라, 주황

봉축위원회 지정

불자의 집 교패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부식이나 탈색의 염려가 없으며 반영구적입니다.

■보급가:1개당 1,000원

■2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차량용 옴마니반메훔도 있습니다.

2546년 달력팜플렛 필요하신 사암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 (02)723-4306-7, FAX(02)738-8682